

150여 명의 젊은 생명 눈 뜨고 잃었다

서울 이태원 '할러윈 참사'
153명 사망·103명 부상
광주·전남 3명 사망
20대 2명·40대 1명 숨져

이태원 참사 특별취재팀

임동욱 선임기자 유연재 기자
오광록 기자 천홍희 기자
정병호 기자 민현기 기자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젊은이들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다. '할러윈' 인파가 이태원에 한꺼번에 몰렸지만 별다른 사전 대책 없이 폭 4m 정도의 좁은 비탈길에서 153명의 젊은 목숨이 압사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관련기사 2·3·4·5·9·17·18면>
지난 29일 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 30일 오후 8시 현재 153명(외국인 20명 포함)이 숨지고 103명이 다쳤다. 희생자의 대다수는 20·30대 젊은 층이고,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있어 사망자가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이날 현재 20대 2명과 40대 1명도 숨지고, 20대 1명이 뇌사상태이며 소방당국과 광주시·전남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지역 출신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의 사망 소식이 나올 우려도 크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전날 밤 서이태원동 일대에 할러윈을 앞두고 최소 수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났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153명이 숨지고 103명이 다쳐 모두 25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 사망자는 이날 오후 8시 현재, 1997년생 남자(서구·강남세브란스병원), 1977년생 남자(남구·이대서울병원), 1999년생 여자(서구·용인세브란스병원) 등 3명이며, 1995년생 여자(북구·서울대병원)가 뇌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중 104명은 여러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45명은 현장에서 숨져 원호로 다목적실내체육관으로 시신이 임시 안치됐다가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영안실로 옮겨졌다. 부상자 중 37명이 중상인 것으로 파악돼 추후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외국인 인명피해는 사망 20명과 부상 15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주한미군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망자 153명 중 거의 절반이 넘는 76명이 경기도 내 병원에 분산 안치됐다.

사망자 중 여성은 97명, 남성은 56명이며, 20대가 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32명, 40대 9명, 10대 4명 순이었다. 13명은 연령대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사망자 153명 중 141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12명의 신원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원 일대에서는 할러윈을 앞둔 주말인 전날 밤 곳곳에서 파티가 벌어졌다. 사고는 이태원동 중심에 있는 해밀톤 호텔 옆 내리막길로 된 폭 4m 정도의 좁은 길에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밤 10시가 넘어 해밀톤 호텔 옆 좁은 길에서 누군가가 넘어졌고, 뒤를 따르던 사람들도 차례로 넘어져 겹겹이 쌓였다"고 말했다. /서울=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참사 직전 이태원 거리 모습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직전, 사고현장인 해밀톤 호텔 부근 옆골목의 모습. 이날 할러윈을 즐기려는 인파가 몰려들어 넘어지면서 2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정부 "11월 5일까지 국가에도기간... 지역축제 긴급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이태원 참사'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를 국가에도기간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어젯밤 할러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에도기간으로 정하고 국경 최우선 순위를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긴급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참사 다음 날인 30일부터 오는 11월 5일 밤 24시까지 일주일일 국가에도기간으로 지정됐다.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서울=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는 이번 '이태원 할러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의 슬픔과 비통한 심정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디지털훈련센터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

소프트웨어
(SW)

빅데이터인공지능
(AI)

미디어컨텐츠
(VR)

디지털리터러시
(오피스활용)

062)380-0606, 064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디지털훈련센터

